

루터와 웨슬리

장기영 박사(서울신학대학교 조직신학)

들어가는 말

올해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가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존경하고 해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점 타락해 죄인의 구미에 맞는 종교로 변질되었을 때, 루터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의 타락을 폭로하고 참된 기독교의 회복을 외쳤기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는 종교개혁자의 후예다. 그런데 종교개혁 정신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면이 많다. 김세윤 교수는 한국 개신교가 “구원파적 복음”에 빠져있다고 비판하고, 김영한 교수는 한국 개신교인이 “죄인의 칭의가 아닌 죄의 칭의”를 말하는 오류에 빠졌음을 지적하며, 신광은 박사는 한국 개신교인의 신학은 죄인의 구미에 맞게 여러 신학을 뒤섞어 성화를 제거한 신학이라고 분석한다. 필자는 이런 말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즉, 중세 가톨릭은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지옥의 공포를 심어주어, 심지어 많은 귀족과 왕들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죄를 씻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 고행의 삶을 살게 하고, 지독히 가난한 사람들도 면죄부를 사는 데 전 재산을 바치게 만들었다. 중세 가톨릭이 매우 타락했지만 적어도 지옥을 믿게 하고 죄를 두려워하게 한 점에서 성경의 일부 진리는 잘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락한 개신교는 중세 가톨릭보다 못한 상태에 빠져 수도원 생활이나 면죄부도 필요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지옥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괴이한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때에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해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웨슬리안 교단들이 하나님께서 개신교 내에 웨슬리와 그의 후예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와 웨슬리 신학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노력을 계속하는 일은, 오늘의 교회를 복음과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16세기 상황에서 중세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 신학의 장점과 기독교계 전체에 끼친 크나큰 공로를 인정한다.¹ 그러나 이 논문은 루터

¹ 루터 신학의 장점과 개신교 신학에 끼친 긍정적 영향을 다룬 필자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장기영, “인간의 죄에 대한 제어로서 하나님의 숨어계심: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의 현대적 적용”,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4호(2016), 67-108; 장기영, “루터의 성화의 장치: 한국 개신교의 종교개혁 메시지 왜곡에 대한 종교개혁자의 교정”,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7호(2017), 245-283; 장기영, “구원받은 신자는 창조세계를 선물로 받는다: 루터의 창조세계 긍정과 신자의 일상적 삶의 책임”, 한국교회사학회지 제50호(2018), 7-42.

신학에 어떤 한계와 약점이 있는지를 솔직히 드러내면서, 그런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는 어떤 특징과 장점이 웨슬리 신학에 있는지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²

I.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실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과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 가톨릭의 신학과 실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단락에서는 중세 가톨릭 신학의 토대인 어거스틴, 전성기인 토마스 아퀴나스, 수확물이라 할 수 있는 가브리엘 비엘의 신학을 중심으로 중세 가톨릭 신학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7성례를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의 실천을 정리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배경으로서 중세 가톨릭을 이해하고자 한다.

1.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신학

어거스틴(St. Augustine, 354~430)의 신학은 중세 신학의 토대이자, 중세 전체 기간을 지배한 신학이다. 그의 신학은 구원에 대한 양면적 이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원천으로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제거하지 않고 변화시키므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할 필요를 함께 가르쳤다. 어거스틴의 신학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없이 우리가 의지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면 ...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협력하신다”라는 말에 잘 요약되어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중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꼽히고, 그의 신학은 트리엔트 종교회의에서 로마 가톨릭교회 “신학의 표준”으로 확증되었다. 그는 구원을 의롭지 못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과정 전체로 설명하면서, 비록 구원은 신앙과 함께 시작되지만, 신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다. 즉, 신앙은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소원을 갖게 하는 정도의 지적인 활동일 뿐이어서 신앙으로는 실제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불완전한 회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완전한 회심은 사랑을 통해 인간의 의지적 행위가 더해질 때 이루어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첫 번째 원인이 된다면, 인간의 행위의 공로는 두 번째 원인이 되고, 따라서 믿음만이 아닌 인간의 사랑의 행위가 구원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중세 신학의 수확물” 또는 “마지막 스콜라 신학자”로 꼽히는 가브리엘 비엘(Gabriel Biel, 1420~1495)은 구원에서 인간의 행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순수하게 자연적인 능력만으로도” 즉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을 최고로

² 이 논문은 필자의 저서, 장기영,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루터 신학 vs 웨슬리 신학』 (부천: 웨슬리 르네상스, 2019)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지면의 제한을 고려해 다른 각주는 생략하기로 한다.

사랑하고 죄를 피할 수 있으며, 자유의지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다. 비엘은 그리스도의 공로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원인이 아니며, “만약 우리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는 구원에 무가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중세 가톨릭 신학의 전개 방향을 요약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모두에 대한 양면적 강조점을 지닌 어거스틴의 신학적 유산을 물려받고도, 점차 구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보다 인간의 행위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신학을 발전시켰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신학은 전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화 되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의 구원을 가르치는 인간중심적 종교가 되어 있었다.

2.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실천

중세 가톨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가톨릭교회의 사제가 베푸는 일곱 가지 성례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 (1) 세례성사 - 타고난 원죄를 씻는다. 따라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 (2) 견진성사 -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지은 죄를 씻는다. 또한 마귀를 이길 힘이 없으면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성령을 받게 하고 마귀를 이길 힘을 부여한다.
- (3) 성체성사 -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더라도, 신부가 인도하는 미사에 참여해 떡과 잔을 받는 사람에게만 죄를 씻는 효력이 전달돼 죄 용서를 받는다.
- (4) 고해성사 - 성체성사 이후 지은 죄는 사제에게 고해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 사제는 하늘의 공로창고에 저장된 그리스도 및 성인들의 잉여 공로로 죄값을 보상에 대죄를 소죄로 바꾼 후, 소죄는 기도, 봉사, 헌금 등 여러 보속 행위를 통해 용서한다.
- (5) 혼례성사 - 거룩한 결혼이 되고 거룩한 자녀가 태어나게 한다(↔마귀의 가정, 마귀의 자녀)
- (6) 종부성사 - 죽기 전에 다시 죄를 씻어 지옥이나 연옥의 고통을 면하게 한다.
- (7) 신품성사 - 사제들만이 받는 성사로, 다른 성례를 베풀 권한을 부여한다.

가톨릭 교회의 7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감추고 신자들을 죄 아래 묶어 두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제들이 앉고 죄를 용서하고, 믿음 대신 성례에 참여해야 함을 가르쳐 가톨릭의 조직을 의존하게 하였다.

요약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춘 채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방법으로 가르쳤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제들이 앉아 그리스도보다 자신들을 의존하게 했으며, 믿음이 아닌 7성례 참여를 실질적 구원의 방법으로 가르쳤다.

II.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

로마 가톨릭교회가 부추긴 지옥의 공포 속에서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다. 다음은 루터 자신의 고백이다.

나는 성실한 수도사였다. 종단의 규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던지, 만약에 수도생활로 수도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일 거라고 자화자찬까지 늘어놓았을 정도였다. 그 때 나와 함께 수도원에 있었던 형제들은 이 사실이 정말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만약 내가 수도생활을 계속했다면 철야, 기도, 독서 그리고 다른 일들로 나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고해 신부 슈타우피츠의 권면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수로서 성경을 강해(1513년 8월 1일 시편강의 시작, 1515년 가을 로마서 강의, 1516-1517년 갈라디아서 강의)한 루터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가톨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적 진리를 감추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제들이 앉아 높임을 받고, 복음 대신 율법을, 믿음 대신 인간의 행위, 구원 대신 지옥형벌을 가르쳐 공포심으로 사람들을 좌우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인간을 우상화 하는 로마 가톨릭의 인간중심적 종교에 반대해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면서, 기독교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믿음 중심의 신중심적 기독교로 회복시키고자 했다.

1. 율법관

율법이 인간에게 허용된 영역과 허용되지 않는 영역을 구분하는 율타리라면, 죄는 허용된 영역에서 살아야 할 인간이 율타리를 넘어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심지어 가장 거룩한 신자라도 넘어서는 안 될 율타리를 넘어 금지된 영역에서 살고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정죄한다." 율법은 결코 인간이 스스로의 의로움을 입증하거나 구원의 공로를 쌓는 방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함을 알려준다.

2. 신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 정반대된 것에서 반대된 것을 창조하신다. 즉, 죄인을 의롭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거나, 그 반대로 행하신다. 죄인의 구원은 이처럼 인간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사역이다.

이러한 구원사역의 원천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사람들은 인간적 사랑의 개념(헬라적인 획득적 사랑 Eros, 히브리적인 공로적 사랑 Nomos)에 매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대상에 의해 생겨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기뻐하는 대상을 발견하지 않고 창조한다.” 따라서 “죄인은 자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은 결코 인간이 선행과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감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려오심, 즉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하향적 사랑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바른 자세는 제1계명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루터의 가장 분명한 주장은 이중예정론에서 나타난다. 루터는 창세 전, 인간이 태어나 선과 악, 심지어 신앙과 불신앙 중 어떤 삶을 택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거나 유기하셨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행위에 의한 공로사상이 기독교에 전혀 개입되지 못하게 했다.

3. 기독론

결혼을 하면 신랑의 것은 신부의 것이 되고, 신부의 것은 신랑의 것이 된다. 이처럼 신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면, 신자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로움은 신자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구원은 죄인이 선행과 공로를 쌓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 “행복한 교환” 또는 이중전가를 통해, 즉 신자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됨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신자에게 전가됨으로 이루어진다. 신자라도 죄인인 이상, 성화 역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전가로만 가능하지, 신자 자신의 불완전한 의에 기초할 수 없다.

4. 성령론

죄인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율법과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을 뿐이다. 성령의 조명 없이 인간은 단지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훌륭한 위인으로만 생각할 뿐 복음 역시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율법은 죄인을 깨뜨리는 천둥 번개와 쇠망치가 되고, 복음은 나를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다.

성화에서의 성령의 사역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신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정죄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이 때 성령은 신자가 율법의 정죄를 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음을 일깨워 주심으로 신자를 위로하신다. 이처럼 루터에게서 구원과 성화 모두는 신자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도우시고 복음으로 위로하시는 성령께 의존한다. 성령 없이는 인간에게 어떤 깨달음과 변화도 불가능하다.

5. 구원론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수용하는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신앙은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즉 인격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율법의 성취,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 세상과 육체와 지옥을 이김” 등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구원과 변화된 삶 모두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간의 행위는 불완전할 뿐이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말씀한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간의 사랑은 약하고 죄로 오염되어 사람을 의롭게 할 만큼 순수하지도, 충분히 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믿음에 대한 적극적인 강조 및 인간의 사랑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루터 신학의 신 중심성의 구원론적 표현이다.

6. 인간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이 죄로 가득하다 (2) 한 사람 속을 들여다보아도 죄로 오염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다 (3) 죄는 인간을 사탄의 지배 아래 종속시켰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노예 된 존재다.

심지어 신자라도 이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기에, 신자는 이 세상에서 세 가지 모순된 상태로 살아간다. (1)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지만 자신의 본성으로는 죄인일 뿐이다. (2) 미래에 의롭다 하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의롭지만, 실제로는 죄가 가득하다. (3) 성령이 신자의 의지를 다스릴 때는 의롭지만, 자신의 의지로는 죄의 노예일 뿐이다. 따라서 신자의 의로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가능할 뿐이며, 신자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는 언제나 죄의 노예일 뿐이다.

이처럼 신자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주된 장소는 신자의 양심이다. 신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기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복음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루터는 만약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양심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라고 가르치면, 그것이 공로사상으로 연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시는 주된 장소를 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루터는 성령께서 신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구원의 공로를 쌓는다는 생각을 피하게 하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죄에 넘어지게 하심으로 교만할 수 없게 하고 겸손케 하신다고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결이 불가능하게 하신 이유는 죄인으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루터 신학의 특징과 한계, 단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루터의 신학은 인간의 행위의 공로를 부인하고 신학의 모든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신중심적 동기에 기초해 있다. 리처드 왓슨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이라는 슬로건은 칼빈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게 루터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바르게 주장한다. 로마 가톨릭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 중 인간 편 극단에 치우친 신학을 가르는데, 가톨릭의 인간 중심적 종교를 깨뜨린 루터의 무기는 하나님 중심적 극단성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루터 신학의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 극단성이 초래한 문제는, 개신교 신학이 복음과 율법, 칭의와 성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양자의 관계를 조화롭게 가르치지 못하고 전자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성경적 균형과 조화를 결여하게 된 것이다. 일례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하다. 거기에는 복음의 성격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야고보서가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경성을 부인했다. “나는 야고보서를 불쏘시개로 사용할 것이다”, “우리 비텐베르크 대학은 야고보서를 추방해버려야 한다”라는 극단적 태도를 보였고, 실제로 야고보서를 구약 외경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리스도인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1525)라는 설교에서는 “우리는 모세의 명령을 따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세는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의 다스림은 끝났다. 그는 이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심지어 십계명도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루터가 복음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율법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율법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결과는, 그의 추종자 요한 아그리콜라(Johann Agricola)를 포함해 오늘날까지 많은 개신교인에게 율법무용론적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아그리콜라는 심지어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죄 속에서도 거룩하다”, “여러분이 매춘부, 불량배, 간음자라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에 깊이 빠져 있어도, 믿음만 있다면 여전히 축복 속에 있다”는 극단적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제프리 만은 루터의 설교 2,300편을 연구한 후, “루터는 언제나 율법과 복음 모두를 설교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 언제나 우선순위에 둔 것은 로마 가톨릭의 율법주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 복음을 훨씬 더 강하게 처방”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한다. 또한

루터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율법의 필요성을 결코 부인한 적이 없음에도 그가 가르친 율법의 역할은 언제나 죄를 정죄하는 부정적 역할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결과 필립 샤프는 “루터 스스로가 후년에 복음의 자유의 오용 및 비텐베르크와 작센 지방 전체에 걸친 개탄할 만한 도덕적 상태에 대해 자주 쓰라린 불만을 터뜨렸을” 정도로 루터의 종교개혁에는 “반(反)율법주의적 경향과 공중 도덕의 퇴보가 수반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최주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려고 일어난 종교개혁 진영은 엉뚱한 복병을 만나게 된다.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개신교 진영 내부에서는 밀도 끝도 없는 방종과 무식함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개혁자들의 구호인 ‘복음의 자유’를 빌미로 집 안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것이다. ... 개혁자들은 복음의 자유, 해방, 모든 신자의 평등한 만인사제직을 핵심 가치로 주장했지만, 현 장에서는 교리의 오해와 오용으로 이어졌고, 왜곡된 ‘복음의 자유’로 인해 율법 기능은 철폐되어 세상 권위와 질서는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로 인해 개신교 성직자들의 부패와 게으름, 교리에 대한 무지가 만연했고, 도저히 성직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 해이와 방종의 사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목사들의 사정이 이러한데 일반 신자들은 오죽했을까? 목회자든 일반 신자든 가릴 것 없이 신앙과 삶의 규칙은 엉망이 되어 가기 시작했다. ... 성직자와 일반 신자들은 모든 제약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 꼴이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교회의 징계를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그로부터 두 세기가 지난 뒤 영국의 존 웨슬리는 “교회에는 세례받은 밥버러지, 세례받은 술주정뱅이, 세례받은 거짓말쟁이, 욕쟁이, 험담꾼, 세례받은 오입쟁이, 도둑, 착취자가 얼마나 많은가?”라며 한탄했다. 많은 개신교인이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지옥이 천국에서 먼 만큼이나 거룩함과 거리가 멀었고”, 기독교 국가, 기독교 교파, 기독교 도시, 기독교 가정에서 셀 수 없는 악행이 일상화된 것을 목격한 것이다.

성경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후 11:14)고 말씀한다. 이런 일은 신학에서도 일어나는데, 사탄이 신학으로 장난을 치면, 신자가 짓는 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궤변(롬 6:1, 15)이 성행하게 된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유1:4) 것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 은혜를, 인간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에 문제없다는 태만과 방종의 허가로 변질시킨 신학은, 오늘날 한국에서도 개신교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사회에서의 존립 근거를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 신학의 한계와 약점으로 인해, 개신교를 성경적 균형과 조화로 회복시키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존 웨슬리의 신학이라 할 수 있다.

III. 존 웨슬리의 신학

웨슬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두 세기 이후의 사람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루터의 강조점을 물려받으면서도, 동시에 루터 신학의 신중심적 극단성과 율법에 대한 부정적 이해로 인해 태만과 방종에 빠진 개신교회를 성경적 거룩함으로,

신중심적 극단성을 띠게 된 개신교 신학을 성경적 균형과 조화로 회복시키고자 노력했다. 웨슬리 신학은 역사 속 다양한 기독교 전통에 각기 흠어져 존재하던 성경적 진리의 파편들을 녹여 창조적으로 종합해 루터가 터부시하고 배제해버린 성경적 진리의 중요한 요소를 개신교 신학 내에 다시 회복시키는 성경적 균형을 특징으로 한다.

1. 율법관

웨슬리 역시 루터처럼 율법을 허용된 영역과 허용되지 않는 영역을 구분하는 율타리로, 죄를 허용된 영역에서 살아야 할 인간이 율타리를 넘어 금지된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넘어서는 안 될 율타리를 넘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영역에서 살고 있는 죄인이기에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인을 정죄함으로 구원의 필요성을 일깨운다는 루터의 가르침에 웨슬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의 전부인가? 만약 구원이 없다면 "율법은 항상 정죄한다"는 주장은 언제나 옳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변화된 본성을 주신다. 웨슬리는 이를 달리 표현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으로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에 새겨진다. 그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고도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신다는 것은, 과거에 주시지 않았던 새로운 율법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신자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죄 된 본성과는 맞지 않는 이질적인 것으로 경험한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은 율법을 혐오해 율법과 죄인 사이에는 반목과 적개심이 존재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녀 삼으시는 사랑을 경험하면, 율법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하고 감사하며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율법은 항상 죄를 정죄하고 복음은 죄를 용서하는 변증법적 관계(Dialectic)로만 한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상관관계(Correlation)가 되도록 바꾸어 놓아, 구원받은 신자는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에서도 신자를 성결과 행복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 복음 안에서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결과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롬 3:31) 율법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역사한다.

2. 신론

웨슬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는 거룩과 사랑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즉 (1) 죄로부터의 분리와 순결을 의미하는 거룩과 (2) 죄인에게 먼저 다가올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용서하시면서 더 깊은 친교로 이끄시는 사랑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 거룩한 사랑이 죄인에게 경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죄인에게 경험될 때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무정형의 은혜”(amorphous grace)가 아니라, 거룩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진 은혜”(normed grace)로 다가온다. 따라서 은혜는 죄 용서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또 가능하게 하신다. 따라서 은혜는 칭의로 그치지 않고, 중생과 성화를 포함한다. 또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주심”을 포함한다.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태만과 방종이 아닌,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웨슬리에 의하면, 모든 것을 단독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반응을 원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기초해 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아 “나무 조각이나 돌덩어리같이” 도덕적으로 무능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간을 강제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아닌 총만한 지혜와 자비와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가르치는 것이, 노예의지를 지닌 인간을 이중예정과 불가항력적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본질은 인간을 하나님께 반응조차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폄하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에게 회복시키신 인격성과 책임성을 바르게 발휘해 하나님과 신앙과 순종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는 데 있기 때문이다. 웨슬리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루터의 이중예정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중 사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성도의 견인 교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강조해 성경적 균형을 벗어난 극단적인 가르침이다.

3. 기독교론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이라는 삼중 직분으로 가르쳤다. (1) 예언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거룩함의

기준을 세우셨다. (2) 제사장 그리스도는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 용서를 가능하게 하셨다. (3) 왕 되신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각 신자를 다스리심으로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근거해 평가하면,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의 죄를 가져가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행복한 교환이나 이중전가를 중심으로 하는 루터의 기독교론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만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만 강조하면, 신자는 늘 죄를 짓고 용서받는 삶을 반복할 뿐, 거룩함의 기준을 깨닫고,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분 전체를 통해 더 넓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웨슬리가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통해 거룩함을 기준을 충족하게 하심 모두를 가르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신자의 순종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순종의 동기와 방향과 능력을 부여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된다.

4. 성령론

웨슬리는 루터 못지않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이 율법과 복음을 깨달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율법이 죄인을 깨뜨리는 천둥, 번개가 되고 쇠망치가 되며, 복음이 나를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계시와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웨슬리는, 루터가 부인한, 성령의 오순절적 능력 즉 성령 세례를 통해 이 세상에서 성결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가능함을 가르쳤다. 루터에게서 복음을 통한 성령의 위로는, 신자라도 죄인이어서 이 세상에서 결코 성결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루터에게 성령의 위로는 죄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죄에 패배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일깨워 주심을 통한 위로인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구약에 기록된 새언약의 예언(신 30:6, 11-14; 렘 31:33; 겔 36:25-27)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으신다는 요엘서의 예언(욘 2:28-29)을 신약의 오순절과 연결했다. 또 성령은 신자의 “마음을 깨끗이”(행 15:9) 하실 뿐 아니라, 각종 은사와 복음 증거의 능력을 부여주심(행 1:8; 2:14-21)을 강조했다. 웨슬리는 신자가 받는 제2차적 은혜로서 성령의 능력세례를 분명히 가르칠 뿐 아니라, 그것을 성결의 은혜와 동일시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입장은 은사중지론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 사도적 영감을 받았고, 교황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직통계시 주장 및 가톨릭 교회가 꾸며낸 기적들로 흑세무민하는 것에 대항하는 논증으로 은사중지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웨슬리는 “나는 신약에서든 구약에서든 ... 기적이 사도 시대 ... 혹은 특정 시기에

한정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어떤 성경 구절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어느 시대, 어느 순간, 어떤 정도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 행하시기를 멈추실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은사중지론에 반대해 콘스탄틴 이후 시대 “기독교 교회 내에서 성령의 은사가 더는 발견되지 않는 진정한 이유”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식어서 ...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은사중지론이 사실이 아니며 교회에 은사가 덜 나타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니엘 제닝스는 웨슬리가 53년간의 사역에서 경험한 초자연적 사건들을 일지, 편지, 설교 등에서 발췌해 『존 웨슬리와 초자연적 사건』(*The Supernatural Occurrences of John Wesley*, 2005)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 내용에는 축귀와 같은 귀신과의 영적 전쟁 16회, 자신과 지인, 심지어 말에게 일어난 신유의 체험 17회, 쓰러짐과 입신 19회, 성령의 역사에 의한 거룩한 웃음과 귀신에 사로잡힌 사악한 웃음 12회, 성령의 임재에 압도된 결과로서 마음의 괴로움과 회개, 위로, 확신, 진동 등 14회, 거짓 예언과 참 예언 11회, 꿈과 환상 30회, 악인으로부터의 초자연적 보호 10회, 천사에 의한 인도와 보호 9회, 그 외에도 기도에 대한 많은 기적적 응답, 성령세례의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웨슬리가 읽었던 조너선 에드워즈의 글과 조지 헛필드의 사역에서는 웨슬리 자신의 사역 못지 않게 많은 은사와 기적이 동반되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루터란 경건주의자들과 청교도들은 루터와 칼빈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한 신자의 변화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신유와 은사 이해에서 은사중지론을 뛰어넘었다. 그럼에도 루터란 전통과 개혁주의 전통은 교리적으로는 루터, 칼빈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한다. 교회사에서 개신교가 은사중지론을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과 풍성한 은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한 것은 존 웨슬리였다.

웨슬리의 성령론이 이처럼 오순절적 능력과 은사를 강조함에도 광신주의로 흐르지 않은 것은, 그의 성령론은 언제나 성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 신자의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신자의 본성의 새로운 구성요소가 되신다. 외부로부터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서 루터의 성화론과 비교해, 웨슬리에게 성화는 성품과 능력의 변화를 가져오는 신자 속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신자 자신의 능동적 의라는 관점에서 훨씬 진전된 개념이다. 신자 속에서 본성을 변화시키고 의의 동력을 일으키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능력부으심을 바탕으로 성령 충만한 신자는 성결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친 점에서 웨슬리 성령론은 종교개혁과 경건주의운동, 성결운동, 오순절운동의 강조점을 모두 포괄한다.

5. 구원론

하나님의 은혜는 죄 용서에서 그치지 않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며 복음을 전파할 능력까지 주시므로, 웨슬리의 구원론은 칭의와 성화의 이중적 강조점을 지닌다. 또한 웨슬리의 구원론은 믿음과 사랑의 이중적 강조점을 지닌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믿음은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지만, 이 평안은 자칫 나태와 방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은 나태와 방종에 빠질 수 없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약 2:22)라는 말씀처럼, 비록 믿음이 행위를 낳기에 행위가 믿음에 의존하더라도, 행위에는 믿음을 변질되지 않게 지켜주고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는 그 자체만의 역할이 있다. 따라서 루터처럼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경시하는 것은 태만과 방종으로 인해 결국 믿음 자체를 연약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갈 5:6)일 때라야 참된 믿음이며, 신자는 그 믿음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6. 인간론

웨슬리는 루터 못지않게 원죄와 인간의 타락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선행은총(또는 일반은총)을 베풀고 계심을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은총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가 이미 역사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행은총을 통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어렵듯이 인식하는 종교성(롬 1:19-20), 양심을 통한 죄에 대한 자각(롬 2:14-15), 성령의 열매를 맺은 어느 정도의 선한 성품(갈 5:22-23),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 3:11), 의지의 자유를 통해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눅 10:42)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간의 인격성을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부여하신 것이다.

루터는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반드시 공로사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부인했으나,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의지의 자유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신자가 노예의지론적 숙명론과 죄에 대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게 한다고 보았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본질은 인간을 하나님께 반응조차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낮추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키신 능력과 기능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 있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아직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한 신자에게 죄가 남아있고, 그런 신자에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실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웨슬리가 루터에게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서 죄 된 본성을 제거하시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웨슬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죄 짓게 하심으로써 겸손케 하실 수는 없기에, “누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을 필연성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여 ...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내시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겸손케 하시는 방법은 죄 속에 머물게 하심으로가 아니라, 인간을 연약성, 질병, 고통, 우둔함, 혼동, 실수 등에 머물게 하심으로다. 루터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은 주로 정죄 받던 신자의 양심에 복음을 일깨워 위로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양심 뿐 아니라 의지에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고 행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작용하신다.

나가는 말: 요약과 분석

루터와 웨슬리의 신학을 전반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학을 일차적으로 그들이 속한 시대와 종교라는 구체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루터 신학의 역사적 맥락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에 빠진 중세 가톨릭교회가 그 배경이 되고, 그것에 대항한 루터 신학의 특징은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중심적 신학이다. 이에 비해 웨슬리가 바로잡으려 노력한 것은 로마 가톨릭의 율법주의와 종교개혁자들의 부정적 율법관이 야기한 개신교의 율법무용론적 경향 모두이며, 그 양자를 바로잡는 웨슬리 신학의 특징은 성경적 균형과 조화라 할 수 있다.

루터는 율법주의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의 의를 내세워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의 독립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기 우상화와 교만을 경계하려 했다면, 웨슬리는 율법주의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교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을 빌미로 태만과 방종, 거룩하지 못한 성품과 삶, 율법무용론으로 나아가려는 실천적 무신론을 함께 경계했다.

루터는 신학 전반에서와 각 주제들에서 인간의 어떤 행함과 헌신과 순종도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인간 삶과 구원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신중심적 신학을 건설하고자 했다면, 웨슬리는 ‘오직 은혜’에 대한 종교개혁적 강조를 수용하면서도, 은혜의 어떤 요소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을 약화시켜 태만과 방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핑계가 될 수 없고, 은혜는 오히려 순종의 동기와 능력과 목표를 부여함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 은혜의 토대 위에서 인간의 책임과 신자의 거룩한 삶을 강조했다. 웨슬리 신학은 루터 신학의 수용하면서도 그 약점을 수정해 은혜가 신자의 거룩한 삶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한 것이다.

만약 루터가 아닌 웨슬리가 종교개혁을 시도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웨슬리 신학이 로마 가톨릭 신학과 어떻게 다른지 잘 구별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웨슬리 신학에는 루터 신학의 전매특허와 같은 과격함과 극단성이 부족하다. 사람들은 루터식 흑백논리와 배타적 양자택일의 장점인 선명함과 확고함, 시원시원함이 없는 웨슬리 신학을, 율법과 복음, 가톨릭과 개신교를 뒤섞은 애매모호한 주장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루터는 다른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루터의 모든 글은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만의 독특한 신학적 사고의 선명함과 탁월함을 드러낸다. 그 점에서 과거만이 아닌 오늘날조차도 루터가 없다면 개신교 신학은 그 근본 토대가 매우 취약해질 것이다. 루터 신학은 칼빈주의와 웨슬리안 전통을 포함해 개신교 내 다양한 전통 모두의 신학적 토대이자 공통분모다. 모든 개신교회는 루터 신학에서 영속적으로 유익을 얻고 있다.

한편, 만약 웨슬리가 없었다면 개신교 신학은 지금과 같은 성경적 균형을 지닐 수 있었을까? 또 개신교회는 지금같이 성령의 역동적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 중세 가톨릭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 사이에서 인간 편 극단에 치우친 구원론을 가르쳤다. 루터는 가톨릭의 극단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과 정반대의 극단에서 상대를 효과적으로 공략함으로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 가톨릭의 인간 중심적 극단성을 깨뜨린 루터의 무기는 하나님 중심적 극단성인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루터 신학은 앞으로 웨슬리 신학의 특징이 될 성경적 균형과 조화를 결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웨슬리를 사용해 역사 속 기독교의 다양한 전통에 각기 흩어져 존재하던 성경적 진리의 파편들을 녹여 창조적으로 종합하게 하였고, 그 결과 웨슬리 신학은 루터가 터부시하고 배제해버린 성경적 진리의 중요한 요소를 개신교 신학 내에 다시 회복시키는 성경적 균형을 지니게 된다. 웨슬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루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웨슬리는 루터가 멈춘 곳에서 더 나아가 루터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했다. 그 점에서 필자는 웨슬리에게 누구보다 감사하면서 낙원에서 그를 반겼을 사람이 루터였을 것이라 믿는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더 이상 자신의 신학전통에만 갇혀 웨슬리 신학과 웨슬리안 전통을 터부시하거나 이단시해,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통해 개신교에 회복시키신 성경적 은혜와 진리,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용하신 다른 모든 신학 전통들을 디딤돌로 삼아 성경적으로 가장 균형 있고 풍성하며 건전한 개신교 신학을 웨슬리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 개신교를 다시금 개혁할 충분한 역량을 갖춘, 가장 성경적이고 건전하며 능력 있는 신학전통은 바로 웨슬리안 신학전통일 것이다.

칼빈과 웨슬리

김영택박사 (웨슬리학회 /성결대학교 조직신학)

I. 들어가는 말

개신교의 위대한 스승 세 사람을 꼽으라면 루터, 칼빈, 웨슬리를 꼽을 수 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였던 임희완은 그의 책, 『루터·칼빈·웨슬리 다시읽기』에서 종교개혁자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웨슬리를 평가한다. 임희완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웨슬리를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택한 이유는 웨슬리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많이 닮아 있으며 웨슬리가 추구한 신앙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가깝게 와 닿아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¹⁾ 더 나아가 임희완은 웨슬리를 오늘 한국 개신교의 신앙과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²⁾ 그리고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루터, 칼빈, 웨슬리 세 사람 중에서 칼빈과 웨슬리가 한국 개신교의 신학을 양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³⁾. 물론 개신교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루터의 신학이 중요하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루터 신학의 토대 위에)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이 보다 비교적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으며 장로교회와 웨슬리안 교회들로 이루어진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교인들을 훈련하는 신학적 틀로서 칼빈신학 내지 웨슬리신학을 사용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장로교는 칼빈을 그들의 신학적 기준이며 표본으로 추앙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장로교의 큰 교세와 교계에 대한 영향력으로 칼빈신학이 한국신학계의 주류로 인식되다 보니, 많은 경우에 웨슬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늘 존재해 왔다.⁴⁾ 필자가 여러가지 경우를 통해 만나 대화를 나눠 본 보수적 장로교의 학생들은 그들의 조직신학 교수로부터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자라고 배우며(이들에게 알미니안은 늘 부정적인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신학은 인본주의적 신학, 행위구원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공로를 더 인정하는 신학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웨슬리는 가르치는 장로교의 조직신학 교수들 중에는 웨슬리의 글을 1차 자료를 통해

1) 임희완, 『루터 칼빈 웨슬리 다시읽기』 (서울:도서출판 그리심, 2016), 5-6.

2) Ibid.

3) 이 말은 루터신학을 과소평가하는 말이 아니다. 한국 개신교회의 교세의 분포를 보았을 때 장로교회와 웨슬리안 교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술이다. 루터의 신학은 개신교신학의 근간을 이루지만, 한국교회 안에서는 루터교회의 교세가 약한 이유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4) 비교적 최근에는 장로교의 학자이거나 목회자인 최덕성, 서철원, 정이철 등에 의하여 웨슬리를 이단 사상가 내지는 이단 사상의 옹호자로 평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 사람들의 도전에 대한 웨슬리안의 응전은 필자가 종교개혁 500주년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김영택, “종교개혁신학의 수용과 극복으로서의 존 웨슬리 칭의론,” 『종교개혁500주년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7), 402-413을 참조하라.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의 장기영 박사가 그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307410309&fref=nf>

읽어 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들 또한 2차 자료를 통해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웨슬리에 대해 그렇게 배웠던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웨슬리는 인본주의 신학자, 행위구원론자,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장로교인들은 웨슬리의 신학을 1차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웨슬리는 인본주자라는 오해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가르치고 있는 성결대에는 신기하게도 한 학기에 한 두명씩은 칼빈주의 신학의 그러한 독선과 편협함으로(특히 이중예정론에 대해 강한 반감으로) 인해 웨슬리안으로 회심하는 학생들이 꼭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장로교회의 신학자, 목회자, 평신도들이 웨슬리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벗어나 웨슬리를 올바르게 이해 할 때가 되었다. 세계적인 팬데믹 전염병으로 인해 기독교가 큰 위기에 처한 이 엄중한 시기에 칼빈주의자들과 웨슬리안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들로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반목과 비난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벗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웨슬리에 대한 칼빈주의자들의 오해하고 있는 신학적 주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칼빈신학과 비교하여 웨슬리 신학의 특징을 밝히고, 웨슬리의 삶과 신학이 오늘 한국교회를 위해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밝히도록 할 것이다.

II. 웨슬리 신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웨슬리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와 같은 체계적인 신학저서를 남기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웨슬리의 신학적 능력에 대한 오해가 장로교인들 안에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결코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부족하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사람이 아니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로서 논리학을 가르쳤고, 그의 저작들에서 정교한 비판적 사고를 읽을 수 있다. 웨슬리는 그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변증하고 논쟁하는 하나의 조직적인 신학으로 발전시키는 대신,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늘 함께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역동적인 이해 위에서 보다 큰 유연성을 가지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의 신학을 발전시켰다. 이런 이유로 웨슬리는 대중적 신학자(a folk theologian)였다.⁵⁾ 유명한 알미니안 복음주의 신학자 로저 올슨(Roger E. Olson)은 그의 저서, “*Arminian Theology: Myth and Realities*” (알미니안신학: 오해와 진실)에서 알미니안의 신학에 대한 칼빈주의자들의 오해에 논하였는데, 대부분의 주제들이 웨슬리 신학에 대한 오해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본 지면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⁶⁾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필자는 올슨이 알미니안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을 웨슬리안으로 선택적으로 바꾸어 읽으며 필요에 따라 표현을 수정하고 부연설명도 더하

5) 톨슨, 『웨슬리 vs 칼빈』, 14.

6) Roger E. Olson, *Arminian Theology: Myths and Realities*, (IL. Dowers Grove: IVP Academic, 2006)

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 1) 오해: 웨슬리신학은 칼빈/개혁주의 신학에 반대적이다.
진실: 웨슬리는 칼빈의 신학에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웨슬리신학과 칼빈 신학은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중요하다.
- 2) 오해: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의 하이브리드(혼합)이 가능하다.
진실: 웨슬리신학과 칼빈신학의 공통점(common ground)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독립된 체계로 존재한다. 첨예하고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는 두 신학 간에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 3) 오해: 웨슬리신학은 정통복음주의신학이 아니다.
진실: 전통적인 웨슬리신학은 정통 기독교의 근본적이며 중요한 교리들을 전적으로 공유한다. 웨슬리신학은 복음주의 신앙의 특징들을 오히려 증진시킨다. 웨슬리신학은 아리안주의나 자유주의신학이 아니다.
- 4) 오해: 웨슬리신학의 핵심은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다.
진실: 웨슬리 신학의 진정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신 성품이다. 웨슬리신학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the universal will of God for salvation)
- 5) 오해: 웨슬리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한다.
진실: 전통적인 웨슬리신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그 어떤 신학보다 더 강조한다. 하나님은 전제군주나 독재자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인격적 방식으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 6) 오해: 웨슬리신학은 인간중심적 신학(a human-centered theology)이다.
진실: 낙관론적 인간학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thoroughly God-centered)적인 웨슬리신학에는 낯선 것이다. 웨슬리는 본성의 비관론(pessimism of nature), 은총의 낙관론(optimism of grace)을 주장하였다.
- 7) 오해: 웨슬리신학은 은총의 신학(a theology of grace)이 아니다.
진실: 웨슬리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선행적 은총론(prevenient grace)이다. 구원의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이다.
- 8) 오해: 웨슬리신학은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
진실: 하나님의 예정은 성경적 개념이다. 웨슬리신학은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웨슬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정이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미리 알고(예지: foreknowledge) 계신다.
- 9) 오해: 웨슬리신학은 오직 은총에 의하며 오직 믿음을 통한(by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칭의를 부정한다.

진실: 웨슬리신학은 본질적으로 종교개혁신학의 계승이다. 웨슬리신학은 하나님의 은총 의한 믿음을 통한 의의 전가 교리를 믿는다. 그러나 칭의 이후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친다.

10) 오해: 웨슬리신학은 속죄교리에 있어서 통치이론(the Governmental theory)을 믿는다.

진실: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하여서는 단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웨슬리는 통치설을 포용하였지만 형벌대속설(the penal substitution theory)를 더 선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칼빈주의자들은 웨슬리신학을 오해하고 있다. 오해를 넘어 진실을 알게 되면 칼빈주의자들과 웨슬리안들은 신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위의 주장들을 토대로 좀 더 논의를 확장시켜 보고자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웨슬리가 칼빈보다 오히려 더 은총을 강조한 신학자이다. 웨슬리는 창조교리(creation)부터 영화의 교리(glorification)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하여 은총으로 완성되는 구원론을 전개한다. 인간의 구원의 서정(the order of salvation)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부분이 없다. 선행적 은총(prevenient grace)에서 시작하여 죄자각의 은총(convincing grace), 칭의의 은총(justifying grace), 성화의 은총(sanctifying grace), 영화의 은총(glorifying grace)까지 모든 구원의 서정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웨슬리를 어찌 은총의 신학자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특별히, 웨슬리는 온전한 성화(entire sanctification) 교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뿌리 뽑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칭의는 우리를 죄책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free from the guilt of sin)이며, 중생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free the power of sin)이고, 온전한 성화는 죄의 뿌리 혹은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free from the being(or root) of sin)인 것이다. 이에 반해, 웨슬리 시대의 칼빈주의자들은 인간 안에 존재하는 죄성의 견고함을 강조하며 인간은 결코 온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없다고 웨슬리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웨슬리는 반문하기를 인간이 중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면, 인간이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웨슬리가 그 시대의 칼빈주의자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범위와 능력과 그 적용점을 폭넓게 그의 신학 전반적인 주제에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며 결코 인간은 온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는 칼빈주의와 하나님의 낙관적 은총이 인간의 비관적 본성을 극복하고 인간에게 온전한 성화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믿는 웨슬리 사이에서 누가 더 은총의 신학자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웨슬리의 신학은 종교개혁신학을 큰 틀에서 계승하면서 그 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⁷⁾ 분명 칼빈은 개

신교 역사에 중요한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칼빈주의신학이 개신교신학의 표준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미국 Azusa Pacific 대학교에서 웨슬리신학을 가르치는 Donald Thorsen교수는 그의 저서 “Wesley vs Calvin”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교단을 초월해서 웨슬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⁸⁾, 필자 또한 전적으로 동의한다.

필자는 성결대학교에 강의하며 상당히 많은 장로교 출신 학생들을 만나며 대화하였다. 그리고 목회의 현장에서 장로교를 다니다가 필자가 목회하는 성결교회로 적을 옮긴 성도들도 많이 만나고 함께 성경공부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내린 결론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싶다. 과연, 오늘날 누가 평신도들 중에서 이중예정론을 믿는다는 말인가? 과연, 오늘날 누가 평신도들 중에서 제한적 속죄론을 믿는다는 말인가? 과연, 오늘날 누가 평신도들 중에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믿는다는 말인가? 많은 경험칙을 근거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장로교회의 평신도들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믿는 것이 칼빈주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T.U.L.I.P.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⁹⁾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 말 자체로는 온전히 웨슬리적이다. 장.감.성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교회의 부흥회에서는 인간의 결단과 헌신을 촉구한다. 실제로 장로교의 목회자들도 웨슬리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것이다.

III. 칼빈 vs 웨슬리

본격적인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과 영성의 비교를 하기 전,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적 유산과 특징, 그리고 위대성을 교회사적 위치에서 먼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칼빈(1509-1564)의 유산

칼빈은 루터 쾰른과 함께 16세기 유럽 대륙에서 종교개혁과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을 이끈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스위스의 제네바를 주무대로 하여 생애의 많은 부분을 보내면서 유럽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다. 칼빈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신학적 변증가였다. 칼빈의 열정적인 활동과 저작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회적, 정치적 권위에 맞서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 들불처럼 번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⁰⁾ 칼빈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보다도 1536년 출판한 『기독교 강요』이다. 제 1판은 총 6장

7) 종교개혁신학에 대한 창조적 종합자로서의 존 웨슬리에 대한 평가와 그의 신학에 대하여 필자의 저서, 김영택, 『웨슬리신학과 사중복음』 (서울: 도서출판 코디엠, 2021)의 제1장과 2장을 참조하라.

8) 돈 톨슨, 『웨슬리 vs 칼빈』 박도웅 옮김, (서울: kmc, 2020), 8.

9) 장로교회의 신자들도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한다. 결코, 당신이 예정되었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예정되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 당신의 선택과 믿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예정이 중요합니다 라고 전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10) 톨슨, 『웨슬리 vs 칼빈』, 18.

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러 번 개정을 거듭하면서 수정 및 보완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장으로 추가하기도 하였다. 최종본은 1559년 출판되었다. 네 권의 책은 여덟 개의 장으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권은 하나님과 창조, 제2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제3권은 성령과 이신칭의, 제4권은 교회와 목회를 다루었다.¹¹⁾ 『기독교 강요』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전세계의 수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에게 신앙적 신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을 통해 장로교 전통에 속한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학적 신념과 도덕적 가치, 목회적 실천의 토대를 정리하였다.”¹²⁾ 칼빈은 대부분의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여러 책들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하였으며 교인들에게 자신이 쓴 성서주석을 읽고 공부할 것을 권하였다.¹³⁾ 칼빈은 교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독교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도 하였으며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학교와 고등 교육을 실시하는 아카데미를 세웠다. 그는 목회자들을 선교사로 파견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조국 프랑스로 보내기도 하였다.¹⁴⁾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가치, 실천에 관하여 판결하는 나아가 징계와 파문, 중대한 경우에는 이단으로 판정하여 교수형에 처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교회 법정을 이끌면서 제네바시를 감독하였다.¹⁵⁾ 이러한 종교개혁적이며 정치적 성취를 통해 칼빈은 그의 영향력을 전유럽에 확장해 나갔으며, 오늘날 칼빈의 영향력은 유럽을 넘어 아시아와 전세계로 확장되었다.

2. 웨슬리(1703-1791)의 유산

웨슬리는 1703년 영국의 조그마한 시골마을 오펜스트에서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 웨슬리의 19명의 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났다. 10살에 중등교육을 받기 위해 차터하우스에 들어가기까지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로부터 가정교육을 받았다. 이후 웨슬리는 1720년 17세가 되던 해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한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윌리엄 로, 제레미 테일러, 토마스 아 켐피스 등의 경건서적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 또한 옥스퍼드 학생들과 함께 신성클럽(Holy Club)을 조직하여 경건의 사역(works of piety)와 자비의 사역(works of mercy)에 힘쓴다.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 후 신앙의 방향을 거치며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가게 된다.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폭풍우 가운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 그들의 신앙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이때부터 웨슬리는 이신칭의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웨슬리는 2년여 간의 조지아 선교사역을 끝내고 영국으로 돌아와 런던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중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어떤 모임에 참석하여 그 모임의 인도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마음 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복음적 회심을 하게 된다. 이 복음적 회심 뒤에 웨

11) 토슨, 『웨슬리 vs 칼빈』, 13.

12) Ibid.

13) Ibid., 18

14) Ibid.

15) Ibid.

슬리는 야외설교에 헌신하며 메도디스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게 된다. 감리교 운동은 크게 부흥하게 되어 1770-80년대에는 프랜시스 애즈베리와 코마스 콕을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한다. 이후 성서적 성결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민족을 개혁하는 일에 힘쓰다가 1791년 8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웨슬리는 칼빈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신학서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웨슬리 신학은 칼빈신학에 비하여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의 설교, 일기, 편지, 그리고 단편적인 논문들을 통해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신학을 전개해 나갔으며, 더 나아가 대중적 설득력까지 지니고 있었다. 웨슬리는 단지 자신의 신학을 하나의 신학체계로 발전시키지 않았을 뿐이다. 웨슬리는 목회의 현장에서 잘 준비된 신학을 가지고 자신의 신학을 삶으로 살아내었다.¹⁶⁾

칼빈주의자들과 같이 체계적 신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학적 명제를 증명하는데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신들의 신앙과 가치는 정당하지만 다른 신앙과 가치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비난하여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 냈다. 과도하게 칼빈주의의 신학에 경도된 사람들은 좀처럼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에 혹은 교회와 교회들 간에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 신앙과 가치, 실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¹⁷⁾ 그들은 실제적인 상황과 거기에서 나오는 질문들과 염려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무시하고 이성적인 정당성이나 부당성, 혹은 일치나 모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웨슬리의 관점에서 보면, 변증과 논쟁에 근거하는 명제들이나 체계적인 신학을 수립하려는 노력들은 성령에 이끌리는 생명의 차원, 즉 웨슬리가 “마음의 종교”(religion of the heart)라고 부른 믿음을 너무나 자주 놓치고 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비체계적이고 신학적이거나 보다는 성령중심적인 신비적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¹⁸⁾

존 웨슬리(1703-1791)는 칼빈보다 대략 이백 년 후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처했던 사회적, 정치적, 교회적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극적인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들은 두 지도자를 비교할 때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한다. 생전에 칼빈은 교회와 정치의 영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며 제네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즉 영국 성공회를 갱신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¹⁹⁾ 웨슬리는 영국성공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였다. 웨슬리가 복음 전도와 영적 성장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한 반면, 칼빈은 종교개혁 전통을 지키고 분명하게 밝히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였다.²⁰⁾

물론 웨슬리와 칼빈은 여러 가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성서적 전통 위에 굳게 서 있다. 두 사람 모두 교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두

16) 톨슨, 『웨슬리 vs 칼빈』, 13.

17) Ibid., 14-15.

18) Wesley, “Preface.” 6, *Sermons, Works* (Jackson), I. 103-4. 톨슨, 『웨슬리 vs 칼빈』, 15에서 재인용.

19) 톨슨, 『웨슬리 vs 칼빈』, 20.

20) Ibid.

사람 모두 그들의 믿음과 가치, 실천을 전파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았다.²¹⁾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 개신교 신자로서 웨슬리와 칼빈은 그들의 신학에 있어서 차이점보다는 일치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유산을 인정하였다. 두 사람 모두 초대교회의 신조들과 중요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고백하였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 구원, 부활, 영생 등에 대하여 이견의 여지가 없다. 두 사람이 초대교회 신조와 교부들의 문서에 대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잘 알려져 있다.²²⁾ 그들은 카톨릭교회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²³⁾ 톨슨 교수는 웨슬리와 칼빈의 위대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종교개혁과 프로테스탄트교회의 전통 안에 회복된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웨슬리와 칼빈은 과거에 그랬듯 앞으로도 프로테스탄트를 대표할 인물들이다. 따라서 기독교 전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더 좋은 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웨슬리와 칼빈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²⁴⁾ 웨슬리는 기독교의 여러 주제들에 관하여 칼빈과 의견이 같았다. 웨슬리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관하여 칼빈의 주장에 동의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웨슬리는 “칼뱅씨와 마찬가지로 나도 지난 27년 동안 언제나 칭의에 관하여 생각해 왔다. 이런 점에서 나는 칼뱅과 머리카락 하나의 차이 밖에 없습니다.”²⁵⁾ 라고 말하였다. (“I think on justification just as I have done any time these seven and twenty years, and just as Mr. Calvin does. In this respect I do not differ from him an hair’s breadth.”)²⁶⁾ 웨슬리와 칼빈의 교회사적 공헌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톨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칼빈이 기독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하지만, 성경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이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웨슬리가 칼빈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확신한다.”²⁷⁾ 톨슨 교수는 웨슬리가 칼빈보다 더 훌륭하게 기독교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필자 또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18세기를 살았던 웨슬리는 교회사에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의 하나로 기록된 메도디스트 신앙운동을 이끌었고, 그 때문에 웨슬리안 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 교회와 그 외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근본적으로 웨슬리의 영향 아래 있게 된 것이다. 많은 웨슬리안 계통의 교회 뿐만이 아니라 장로교 계통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웨슬리안적인 것은 웨슬리의 신학의 내용들이 신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좀 더 성경적이기 때문

21) Ibid.

22) Ibid., 9.

23) Ibid., 9-10.

24) Ibid., 10.

25) John Wesley, *Works* 21, 1765년. 5. 14. 일기. John Newton에게 쓴 편지. 웨슬리는 칼빈의 신앙에 많은 부분 동의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썼다.

웨슬리신학연구소 편역, 『존 웨슬리 저널』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20)

26) W. Reginald Ward and Richard P. Heitzenrater, eds.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21. *Journal and Diaries IV*. (1755-1765), 509.

27) 톨슨. 『웨슬리 vs 칼빈』, 9

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학자 도널드 톨슨 교수는 위에서 언급한 그의 책을 통해 총 8가지의 화두를 던지며, 그러한 8가지 주제들과 관련하여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칼빈보다 웨슬리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톨슨 교수의 이러한 통찰에 많은 부분 동의하며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제 그 8가지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3. 칼빈 vs 웨슬리 : 주요 주제 비교

1). 하나님의 주권 vs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웨슬리와 칼빈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하여 말하였다. 문제는 두 사람이 주권과 사랑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하며, 무엇에 무게중심과 강조점을 두느냐에 관한 것이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랑에 보다 큰 강조점을 둔 반면, 칼빈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능력을 더 많이 강조하였다고 믿는다.²⁸⁾ 이 말은 웨슬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나, 칼빈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웨슬리와 칼빈을 비교하는 가운데 때때로 대립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강조점(혹은 중요성이나 선호도)의 차이이다.²⁹⁾ 세계적인 교회사학자 필립 샤프는 칼빈주의 신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칼빈주의는 어거스틴 계열의 신앙에서(매우 정확하다 할 수 없지만)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유익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3:16)을 무시하는 근본적인 오류를 갖고 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다.”³⁰⁾ 웨슬리는 칼빈주의자들과 교류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는 그들의 신앙적 관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웨슬리의 하나님 이해에서 중심적인 부분은 사랑하심이었다.³¹⁾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웨슬리는 성경의 중심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님이 통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은 성경에 나타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온전하게 읽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요한일서 4장 8절 대한 주석에서 웨슬리는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통치의 특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다른 완전함에 따듯한 영광을 더해 주는 특성이다.”³²⁾ 칼빈의 신학에서 사랑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장 우선적인 강조점은 아니다. 『기독교 강요』의 소제목들을 잠시 살펴보면, 칼빈이 창조주 하나님,

28) 톨슨. 『웨슬리 vs 칼빈』, 24.

29) Ibid.

30)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8 vols. (1910: Grand Rapids: Eerdmans, 1976), 8.261.2. 톨슨. 『웨슬리 vs 칼빈』, 54. 에서 재인용.

31) 톨슨. 『웨슬리 vs 칼빈』, 48.

32) Ibid.

하나님의 지식, 율법과 복음, 은혜의 유익함과 영향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장의 주제는 성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거룩한 역사, 신앙, 영원한 선택 등이다. 사랑은 “기독교 강의”의 소제목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칼빈은 다른 저작들에서도 사랑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³³⁾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중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강조했지만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신학의 가장 큰 주제로 삼았다는 것이다.

2). 그 외의 주제들: 성경, 인간, 은혜, 구원, 영성, 교회, 사역에 관하여³⁴⁾

(1) 성경: 독점적 권위보다 우선성

성경에 관한 관점을 간략히 말하자면, 칼빈은 성경의 독점적 권위를 주장한 반면, 웨슬리는 성경의 우선성을 인정하면서 기독교의 전통과 이성, 경험을 중요한 신학적 자료로 삼았다.

(2) 인간: 예정보다 자유

칼빈은 하나님께서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로 이끌어 가는 구원의 전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웨슬리는 인간은 은혜에 의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적인 은혜라고 믿었다. 그리고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는 인격적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님인 선행적 은총을 통해 인간 안에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믿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들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믿는다.

(3) 은혜: 불가항력보다 먼저 주어진

웨슬리는 평생을 믿음으로 은혜의 의하여 의롭게 되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자들은 웨슬리가 공로를 통한 의를 주장한다고 비판하였다.³⁵⁾ 말년의 웨슬리는 그러한 비판이 칼빈의 신학적 성찰에 대한 편협한 해석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을 때 나는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구원이나 심판 중 한 가지를 받는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로에 의한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의지에 의한 구원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고 본다는 점이다. 그들은 절대의지에 의한 구원을 부인하고, (그들의 견해

33) 톨슨. 『웨슬리 vs 칼빈』, 48.

34) 이 주제에 관하여 톨슨이 『웨슬리 vs 칼빈』에서 제시한 8가지 주제를 따라 정리하였으며, 필자의 견해와 함께 요약 발췌하였음을 밝혀 둔다.

35) 톨슨. 『웨슬리 vs 칼빈』, 103.

에 따르면) 공로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³⁶⁾

(4) 구원: 제한적이기보다 무제한적인

칼빈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제한적 사역이었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비록 제한적 속죄에 대한 신학적 신념을 분명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저서들 전체에서 그러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의 그의 제자들은 틀립 교리를 통해 제한적 속죄론을 공식화하였다.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 당할 사람들을 정하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예수의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웨슬리는 제한적인 속죄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강력하게 거부하였다. 웨슬리는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편성이 만인구원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에 응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받게 된다. 웨슬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받기로 미리 정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하는 칼빈의 모습은 신학적으로 믿을 수 없고, 목회의 관점에서 잔인하다고 보았다. 그 대신 웨슬리는 구원의 조건을 믿음과 회개라고 보며 은혜 안에서 이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절박하게 선언하였다.

(5) 영성: 금욕보다는 경건

칼빈은 루터와 달리 율법의 세번째 용도, 규범적 용도(normative use)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활력을 소망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의 인생을 살고 또 그만큼 인생의 문제들과 투쟁하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있어서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웨슬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도우셔서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다는 사실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웨슬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6) 교회: 정죄보다 일치

칼빈은 교회의 위상을 높게 여기면서, 악으로부터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칼빈은 반대자들을 비판하고, 파문하고, 추방하거나, 필요하다면 처형까지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규율주의는 교회와 세속 권력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후자는 교회와 세계의 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으로 간주되었다. 교회에 대한 칼빈의 권위주의적 지도력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세속법의 영향력과 결합되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맺어야 할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보편적이고

36) Wesley, "Thoughts on Salvation by Faith," 5., Woks(Jackson), XI. 493-94.

평화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웨슬리는 교회에서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을 주요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웨슬리는 자신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신론자들, 율법폐기론자들, 이중예정론자들과 격렬하게 논쟁하였다. 그러나 웨슬리는 교회와 세속권력이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나 신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웨슬리는 교회와 세속권력의 분리를 칼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는 교회가 권력의 영향에 쉽게 흔들릴 때, 교회나 국가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7) 사역: 치리보다 격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사역을 강조하였다. “말씀과 성례전”은 그의 사역의 주제가 되었다. 규율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 칼빈은 교회와 세속 권력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위임받은 주체들이라는 것을 유독 강조하였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위임과 성경의 우선성을 선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는 현재에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의 사역은 교회라는 영역을 넘어 신학 교육을 고양하고 개혁교회의 성경적인 기독교를 널리 전파하는 봉사로서 확대되었다. 웨슬리는 더욱 창조적이고 복음적이며, 집회를 강조하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였다. 그는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을 성경대로 강조했지만, 또한 사람들의 복합적인 필요에 따라 혁신적인 사역들을 개척하였다. 그러한 혁신에는 야외설교와 신도회, 속회, 밴드 등으로 조직된 소그룹 사역의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웨슬리는 빈곤의 원들에 대응하는 사역을 전개했는데, 감옥의 개혁과 노예제의 폐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상 토슨 교수는 8가지 쟁점에 관하여 서술하면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실천적인 근거를 제시한 웨슬리의 관점이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한 칼빈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칼빈보다 웨슬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명료하게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³⁷⁾라고 주장하는데, 전적으로 옳은 주장이다.

토슨 교수가 제시한 8가지 신학적 주제에 더하여 칼빈과 웨슬리 사이의 성령론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필자의 판단으로 칼빈의 성령은 실제 목회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성령론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사변적이며 신학적인 차원이 강하다. 특별히 칼빈의 성령론의 특징은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한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역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성령의 사역을 우주적 사역, 개인적 사역, 그리고 교회적 사역의 세 가지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주적 사역에 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칼빈은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성령론을 제시한다. 성령 사역의 세 가지 차원,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 인간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 교회와 관련된

37) 토슨, 『웨슬리 vs 칼빈』, 13.

성령의 사역. 칼빈은 성령사역의 동심원처럼 관계를 가지는 세 가지 영역들을 말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행위는 그 작용에 있어서 성령의 행위이다. 가장 넓은 원은 그 질서를 가진 모든 창조세계와 무의식적인 동물적 삶을 포용한다. 두 번째 보다 좁은 원은 그 역사적인 형태들을 가진 인류의 이성적 삶을 포용한다. 그리고 가장 안쪽의 원은 선택받은 자들의 영적인 삶의 영역이다. 바깥 원들은 그것에 의해 감싸지고 있는 안쪽의 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는 인류를 위해, 인류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한 분의 성령이시기에, 자연, 역사, 그리고 구원역사는 목적론적으로 서로 관련된다. 칼빈의 성령론은 세계 경시적이며, 학문 적대적이며, 예술을 무시하며, 다지 피안성에만 향해진 성령론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래적 삶에 대한 명상과 현재적 삶에 대한 경시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웨슬리의 성령론은 현장에 실천되어 지고, 많은 영혼들을 회개케 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역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었다. 물론 칼빈도 기독교 신앙과 관련하여 성령과 신비를 말하고 있다. 칼빈이 그러한 신앙의 역설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칼빈은 역사와 신학과 관련된 토론에서 지성적으로 뛰어난 통찰력과 정교함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개인적 신앙 체험, 소망, 사랑, 그 밖에 성령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만남 같은 실천적인 요소들을 신학의 이성적 통일성으로 대체하였다. 분명히 칼빈의 신학에도 신비와 역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은 그의 조직신학의 해석학적 중요성 앞에서 상대적으로 부차적으로 여겨졌다.³⁸⁾ 그러나 웨슬리의 성령론은 성령의 기사와 이적을 부정하는 신학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동시에 성령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은총의 수단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신학이었다. 웨슬리는 성령을 통한 신자의 회개를 강조하며 성령충만 곧 마음의 성결과 사랑의 삶을 강조한다.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강조한다. 성령의 내적증거로서의 믿음과 외적 증거로서의 행함의 열매와 은사를 강조하였다. 성령운동을 하는 한국교회들에서는 성령충만을 곧 방언을 하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성령충만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과 무관한 신비적인 경험으로 인식되어 진다. 웨슬리의 성령론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함,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거룩한 삶을 강조함으로 신비주의적 신앙을 넘어서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믿음과 삶의 불일치일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의 성령론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과 능력있는 삶을 균형있게 강조함으로 한국교회에 큰 도전과 교훈이 될 것이다.

IV. 웨슬리의 신학적/교회사적/목회적 의의

존 웨슬리는 1703년 영국 국교회 사제의 아들로 태어나 88세로 죽기까지 영국 국교

38) 톨슨, 『웨슬리 vs 칼빈』, 15.

회의 사제로 살았던 위대한 전도자요 신학자이다.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 신학의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혁주의 신학을 태동시켰다면, 웨슬리는 그 개혁주의 신학이 200여년을 지나오며 드러난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여 새로운 신학적 대안을 제시한 신학자이다. 조종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교회의 부흥과 사회의 갱신을 가져왔다.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절망적인 18세기 영국 사회의 갱신시키게 되었다. 당시 영국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다. 영국 민중은 가난하였다. 음주와 향락으로 타락하고 있었다. 런던 거리의 4분의 1이 술집이었으며 범죄가 많이 일어나 감옥은 죄수들로 가득차 있었다. 한편 교회는 무기력하여 일반 사회 인사들은 교회를 향한 냉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웨슬리 신앙운동을 통해 교회와 사회가 새로워졌다.”³⁹⁾

엘리 할레비(Elie Halevy, 1870-1937)라는 프랑스의 역사가는 영국에서 프랑스 혁명과 같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웨슬리의 부흥운동에서 찾았다. 할레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의 일반역사가가 영국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영국 사회에서도 자칫 일어날 수 있었던 폭력적인 피의 혁명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분노를 메도디스트 신앙으로 승화시키며 극복하게 하였다는 해석은 교회사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에 마땅한다. 웨슬리의 메도디스트 운동의 근간에는 바른 믿음(orthodoxy)의 신학이 있었다. 다시 말해, 웨슬리의 메도디스트 운동은 성경적 기독교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정통신학의 내용을 견지하였지만 웨슬리는 신학을 영혼구원과 전도의 현장에 펼쳐내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의 메마른 신학위에 힘줄과 살을 붙여 살아있는 신학이 되게 하였다. 웨슬리의 목회와 설교, 그리고 선교에는 건강한 성경적 신학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것이 웨슬리의 설교에 능력이 있었던 이유이다. 또한 웨슬리는 바른 믿음(orthodoxy) 곧 정통적인 신앙 위에 바른 경험(orthopathy), 바른 실천(orthopraxis), 바른 회중(orthosocietas)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메도디스트 운동을 발전, 확장시키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웨슬리의 신학은 무엇보다 창조적 균형과 조화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사적으로 바른 교리를 강조했던 전통, 바른 경험을 강조했던 전통, 바른 실천을 강조했던 전통이 제 각기 자신의 입장을 견고히 고수하려고 했다면, 웨슬리는 바른 교리(orthodoxy)에 기초하여, 바른 경험(orthopathy)으로 골조를 세웠다. 웨슬리는 이성과 관련된 바른 신학 위에 뜨거운 마음의 신학을 연결시킨 것이다. 웨슬리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인격적 만남의 체험을 통해 더욱 현장성이 있고 역동적인 신학이 될 수 있었다. 웨슬리는 성부, 성자, 성령과의 뜨거운 만남의 지속적 체험 곧 영성을 통하여 그의 신학과 설교에 역동적인 힘을 갖게 되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선교하였던 것이다. 웨슬리는 바른 믿음과 바른 경험의 토대 위에 바른 실천(orthopraxis)를 통하여 메도디스트 안에서 종교개혁을 정신을 성취해 갔으며, 바른 회중(orthosocietas)을 통해 부흥운동의 불길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39) 양기성 편저, 『웨슬리의 영성과 리더십』 (서울: 쿤란출판사, 2005), 개회사(조종남).

균형의 신학은 그의 은총론과 구원론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군들에서도 어김없이 발견된다. 즉, 은총과 율법, 믿음과 행함, 칭의와 성화, 하나님의 단독사역과 신인협력설, 호의로서의 은총과 능력주심으로서의 은총, 은총의 수용과 은총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은총의 순간성과 점진성에 관한 주제들이다. 웨슬리는 양자택일(either/or)의 신학방법론이 아니라 양자종합(both/and)의 신학방법론을 통하여 종교개혁신학을 종합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저명한 웨슬리안 신학자 윌리엄 아브라함(William Abraham)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학자로서 웨슬리의 위대성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일반적으로 서로 분리되고, 고립되어 표현되어 온 요소들을 묶어내는 능력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에 건강하고 종합적인 비전을 제공하는 살아 있는 강조점들을 상호대립 속에서 종합하였다. 다음에 나오는 대조적으로 보이는 상관어들을 생각해 보라. 믿음과 행함, 개인적 헌신과 성례전적 실천, 개인적 경건과 사회적 관심, 칭의와 성화,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성숙, 성경과 전통, 이성과 계시, 위임과 자율, 창조와 구속, 속회와 공교회, 지역교회와 세계교구.”⁴⁰⁾

이러한 웨슬리의 균형과 조화의 신학이 웨슬리안의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V. 나가는말

지금까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웨슬리와 칼빈 신학의 특징들을 살펴 보았다. 웨슬리는 신학에 대한 보다 실천적 접근을 통해,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깊이 이해하고, 응답하는 효과적인 교회의 신학자요 지도로서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톨슨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도전은 성령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힘을 주는 방식과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경과 그들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신실한 성도가 되는 방법을 포함한다.”⁴¹⁾ 조직신학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적 체계에 초점을 맞춘 칼빈의 신학은 그리스도인에게 지상의 가치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성과 논리에서 오는 이익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⁴²⁾ 이성과 이성의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이성이 믿음, 소망, 사랑보다 높은 가치로 인정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개신교의 3대 스승(루터, 칼빈, 웨슬리) 중 루터와 칼빈의 개신교의 토대를 놓았다고 한다면, 개신교인의 삶에 필요한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과 가치, 실천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웨슬리의 공로가 크다

40) William J. Abraham, *The Coming Great Revival: Recovering the Full Evangelical Tradi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4), 67. 토슨, 『웨슬리 vs 칼빈』에서 재인용, 17.

41) 톨슨, 『웨슬리 vs 칼빈』, 16.

42) 톨슨, 『웨슬리 vs 칼빈』, 160.

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교회가 칼빈을 넘어 웨슬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한국교회가 든든한 성경적 신학과 뜨거운 가슴의 신앙 위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 한국교회를 변혁시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 확장시킴으로 어려운 시대속에서도 다시 한 번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김영택. 『웨슬리신학과 사중복음』. 서울: 도서출판 코디엠, 2021.

돈 톨슨. 『웨슬리 vs 칼빈』. 박도웅 옮김. 서울: kmc, 2020.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양기성 편저. 『웨슬리의 영성과 리더십』. 서울: 쿤란출판사, 2005.

원종천. 『존 칼빈의 신학과 경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이성주.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 서울: 도서출판 잠언, 2002.

임희완. 『루터 칼빈 웨슬리 다시읽기』.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6.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ition. 2 Vols.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Collins Kenneth J.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McNeill John T.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Olson, Roger E. *Arminian Theology: Myths and Realities*. IL. Downers Grove: IVP, 2006.

Outler, Albert C., ed.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ed. Vols. 1-4, Sermo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87.

Wendel, Francois.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 by Philip Mairet. Michigan: Grand Rapids: Baker Books, 1963.